

Bic Camera와 Yodobashi Camera



김 양 평 의
일본 이야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도쿄에 가서 전철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주요 역 근처에 붉은색 큰 글씨로 적혀있는 ‘Bic Camera(ビックカメラ)’, ‘Yodobashi Camera(ヨドバシカメラ)’라는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두 곳 모두 이름에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 카메라 전문 판매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곳을 찾아가 보면 카메라 판매점치고는 규모가 너무 큰 것에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전철역 바로 옆에 아주 큰 건물을 전체로 매장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몇 개의 건물을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층별 안내도를 확인해 보면 카메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 백화점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이 두 회사의 이름에 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된다.

최근에 여행을 다니면서 카메라를 따로 챙겨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사

진 촬영에 진심인 사람들은 값비싼 장비를 챙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은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동 카메라가 필요했고 당시 도쿄의 요도바시(淀橋) 지역(현재의 신주쿠 주변)에서 카메라와 렌즈, 필름을 판매하는 카메라 판매점이 문을 열었다. 그것이 바로 Yodobashi Camera의 시작이었다. 1960년대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며 카메라와 오디오와 같은 고가 장비의 수요가 급증했고, Yodobashi Camera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점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정착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일본 경제 호황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세계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들에게 필수품이 있었는데 바로 ‘카메라’다.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카메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기 편리한 카메라가 필요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도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캐논, 니콘, 미놀타 등의 기업이 성장했고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도 했다. 1970년대 후

반, 이케부쿠로에서 대규모 카메라 할인 매장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Bic Camera의 시작이다. 카메라를 할인 판매하는 커다란 매장이라는 뜻이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카메라, 오디오 등 고가의 장비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해외여행 또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즉, 카메라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Bic Camera와 Yodobashi Camera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선 카메라 중심의 판매 제품 범위를 PC, 게임기, 가전,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즉, 카메라 전문점에서 종합 가전 판매점으로 진화한 것이다. 게다가 대량 판매 시스템 구축으로 회전율을 높여 판매 가격을 낮춤으로써 극도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객 유입과 매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종합 백화점 형태로 변모했지만, 두 회사가 ‘카메라’라는 이름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상호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카메라 ‘전문점’에서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성을 이어가기 위함일 것이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인재들이 떠나는 韓 자본시장



김 지 수 첩
신 하 은
(자본시장부)

한국의 자본시장이 필요로 하는 건 ‘사람(人)’이다. 시장을 활성화시킬 투자자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을 받쳐 줄 인재도 절실하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형편없는 기관장”이라고 칭했다. 시간외수당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으로 고발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권력 기관으로 비쳐지는 금융감독원 내에는 소위 ‘열정페이’(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를 받고 야근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조직의 현실을 두고

“겉만 번지르하지 속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원장에 따르면 금감원은 시장임금 대비 보수 수준이 70%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6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금감원 인력의 급여 체계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조직 매력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호소다.

자본시장의 인재 유출은 금감원만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운용역의 워라밸은 민간 운용역 대비 보수, 복지, 조직 구조 등에서 모두 메리트가 부족하다”며 “일하기 힘든 구조인 만큼 운용역 이탈도 쉽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은 약 15%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얻었지만, 운용력들은 더 잘해야 하는 부담만 남아 있다. 국민연금이 당장 성과를 냈다고 해서 기금 고갈이 우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금 규모도 이제

1400조원에 달하는 만큼 운용역 강화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인력의 ‘엑소더스(대탈출)’ 막고자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 중이다.

민간 금융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주고 있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올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50조원까지 불어났지만, 투자자들의 파트너인 운용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ETF의 독식 구조가 액티브 펀드의 활성화를 위축시켰고, 운용역이 역량을 발휘할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목소리로 존재한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니즈를 끌어온 것은 분명 잘한 일이다.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운용 인력에 요구되는 스킬셋이 바뀌고 있을 뿐이고, 이제는 시장 구조 역시 그 변화에 맞춰 재정비돼야 한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2월 3일 (음 10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인(仁)이 없는 발산개세(拔山蓋世)는 허세일 뿐. 48년생 아버지 살아실제 생기를 다하여라. 60년생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다. 72년생 빨리 가려다가 사고 수이니 운전을 양보하는 것이. 84년생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37년생 그동안의 경험으로 좋은 결과를 창출. 49년생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면 만회하기 어렵다. 61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기쁘다. 73년생 작은 일이라도 가버이 보지 마라. 85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큰 이익을 얻게 되는데.

38년생 뱀띠와의 거래는 잘 살펴야 한다. 50년생 어려울 때 귀인이 서쪽에서 온다. 62년생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니 펄 난감하다. 74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86년생 지갑이 두툼해지면 마음도 든든해지게 된다.

39년생 친구가 찾아오니 하루가 즐겁다. 51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 63년생 말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은 아니다. 75년생 대인관계도 중요하니 경조사도 신경을 써야 할 듯. 87년생 작은 성과라도 있으니 다행.

40년생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간다. 52년생 하나를 투자했는데 열을 얻는 운 좋은 날. 64년생 신세 졌던 사람이 빚을 갚으러 온다. 76년생 이것저것 생각에 휘둘려 기회를 손실하니. 88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41년생 숨은 기술실력을 발휘하여 남들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53년생 문서의 매매가 길하다. 65년생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77년생 음주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89년생 주변 사람의 협조로 해결책.

42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 54년생 몸은 고달파도 재물은 들어온다. 66년생 욕심이 과하면 언젠가 내 것을 잃게 되는데. 78년생 흔한 성씨 김 씨 중에 귀인을 찾는다. 90년생 주위를 배려해야 이익이 더 크다.

43년생 실속은 별로 없는 속 빈 강정. 55년생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것이 자연법칙 아니겠는가. 67년생 동료와의 협력이 서로에게 도움. 79년생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저녁을 한다. 91년생 오후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난다.

44년생 시간이 해결하니 여유 있게 관망. 56년생 과민한 반응은 관계를 그칠 수 있다. 68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니 이익이 있다. 80년생 분주한 가운데 승진과 발전의 기회가 다시 온다. 92년생 성공이 가장 좋은 성공의 비결이니.

45년생 훌륭하지 못한 사람도 훌륭한 말은 할 수 있다. 57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는다. 69년생 좀 더 일찍 일어나라. 81년생 영업에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생긴다. 93년생 행운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다.

46년생 늦게 나타나는 성과로 마음이 졸인다. 58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하자. 70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해야 행운이 깃든다. 82년생 말도 차면 기우니 미리 준비를 해야. 94년생 금전 기대를 접으면 마음이 편하다.

47년생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 59년생 능력이 있을 때 선행을 베푸는 것이 좋다. 71년생 결을 떠나는 사람은 잡지 마라. 83년생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마라. 95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복권을 사야 하듯 복 받으려면?

김상회의四季 복을 바꾸는 삼재기도

사람의 일생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런 인생은 없다. 언제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때로는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런 시기를 흔히 삼재라고 부른다. 삼재란 불 불 바람으로 상징되는 세 가지 재앙이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전통적 개념이다. 특별히 아홉 해마다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하여 그 시기를 맞으면 많은 이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올렸다. 삼재기도는 이렇게 운명의 흐름 속에서 재앙을 막아내고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실천이다. 삼재기도는 재앙을 막아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서원이 된다. 삼재기도의 핵심은 새 희망을 세우는 데 있다. 삼재를 재앙이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시 태어날 기회로 보는 것이다.

삼재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전환의 힘에 있다. 사람의 마음은 두려움에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삼재기도는 흔들림을 멈추게 하고 혼란을 다스려 준다.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고 ‘삼재가 소멸되고 복이 깃들게 하소서’ 발원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지가 단단해진다. 그렇게 두려움을 의지로 전환하기때문에 삼재기도를 올린다. 삼재의 기간은 불필요한 인연 잘못된 습관 묵은 업장을 정리하도록 강제하는 시련이기도 하다. 삼재기도로 참회하며 정진하는 사람은 이런 시련을 단순히 고통으로만 겪지 않는다. 귀인의 인연을 열어주니 삼재의 시기에 겪는 어려움이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고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이 된다. 삼재의 시기를 어둠의 시기로 여기지만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밝히면 새로운 빛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 불빛은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려는 소망이자 두려움을 넘어서는 희망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0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0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신석학원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5	1	6		
1		9			
8		6		4	
1			7		4
	9				5
3		8			1
	7		4		6
		9		2	
8	3	2	1		

2		5		7	4
		3	6		9
	9	2		6	
				6	7
	1			2	
8	9				
	7		5	3	
5		6	9		
3	8		4		1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6	2	4	8	9	8	7
4	2	7	8	9	6	1	8	9
9	8	8	7	9	1	6	4	2
1	4	9	9	6	8	7	2	8
8	9	2	9	1	7	8	6	4
7	6	8	4	8	2	9	9	1
6	7	1	8	2	9	4	9	8
8	8	9	6	7	4	2	1	9
2	9	4	1	8	9	8	7	6

1	9	6	7	2	4	9	8	8
2	8	4	6	8	9	7	1	9
9	7	8	9	1	8	4	2	6
9	8	7	4	9	1	2	6	8
8	6	2	8	9	7	1	4	9
4	9	1	2	8	6	9	8	7
8	1	9	8	7	2	6	9	4
6	2	9	4	8	8	7	1	
7	4	8	1	6	9	8	9	2